

아웃도어 신소재 박람회 9월5일 개막

섬유산업의 침체 속에 나홀로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아웃도어제품 신소재가 한자리에 모인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9월5일부터 3일 동안 코엑스에서 섬유소재 박람회인 <프리뷰 인 서울(PIS) 2012>를 개최한다고 8월7일 발표했다.

2012년 PIS는 국내 패션시장을 주도하며 폭발적인 매출 신장세를 지속하는 아웃도어제품의 첨단 신소재를 대거 선보일 예정이다.

스포츠의류 생산기업인 에스티원창은 피부친화적인 원단과 내구성이 강한 나일론(Nylon)제품, 공기 투과도가 뛰어난 수용성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등 다양한 기능성제품을 소개한다.

기능성 섬유 생산기업인 영풍필텍스는 복사열을 차단하는 여름용 냉감소재 <콜드노어>와 새로 개발한 슈퍼융합소재를, 신한산업은 일본의 고가 기능성 소재를 대체할 신소재 나일론제품을 공개할 계획이다.

특히, 스위스와 독일, 홍콩 등 10개국의 섬유 생산기업들도 행사에 참여하기로 해 국내외 패션기업들의 선택 폭이 크게 넓어질 전망이다.

김동수 섬유산업연합회 부회장은 “아웃도어 전문기업 뿐만 아니라 아웃도어 스타일에 주목하는 모든 패션기업의 구매욕을 불러일으킬 소재들을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화학저널 2012/08/08>